



도하아시안게임 한달 앞으로

아시아를 빛낼 태극전사들

장미란 “아시아엔 상대가 없다”

세계 여자역도선수권 2연패...세계기록도 달성

‘박태환(수영)·김덕현(육상)·이원희(유도) ‘금’ 장담



역도 장미란(23·원주시청), 수영 박태환(17·경기고), 유도 이원희(25·KRA), 탁구 유승민(24·삼성생명), 양궁 박경모(31·인천계양구청), 복싱 이육성(25·보은군청), 육상 김덕현(21·조선대).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될 제15회 아시안게임에서 ‘코리아’의 기상을 드높일 7인방이다.

장미란은 아시아 무대가 좁은 여걸. 올해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정상 을 지켰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을 따냈고 지난 5월엔 세계기록도 세웠다.

세계 1위 장미란은 2인자 무수양양(중국)과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영의 대들보 박태환은 자유형 200m, 400m, 1500m 3관왕을 목표로 물살을 가르고 있다.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은 1982년 뉴델리대회 때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밖에 없다. 24년만에 3관왕 탄생이 기다려진다.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는 유도 73kg급 경쟁자 다카마츠 마사히로(일본)에겐 늘 자신감에 차 있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올해 초 가노컵, 지난 달 국제유도연맹(IJF) 단체전에서 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아테네 영웅’ 유승민(세계 8위)도 다시 만리장성 돌파에 나선다.

메달밭 양궁의 망령 박경모는 ‘효자종목 수상’에 디딤돌을 놓겠다는 각오다.

복싱은 1980년대 전통의 메달 박스였다. 하지만 ‘3D 종목’으로 치부되며 메달 수도 확 줄었다.

지난 해 문성길 이후 19년만에 세계야마복싱을 제패한 이육성(플라이급)은 9월 파키스탄 그린힐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최근 5개 국제대회에서 연속 우승했다. 올해 대한민국 체육상의 영예도 안았다.

종합대회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이 걸린 육상은 한국 선수단에는 ‘남의 잔치상’이었다.

마라톤은 아시안게임 4연패를 했지만 트랙·필드 종목은 아시아의 벽도 높게만 느껴졌다.

올해 김천 전국체전 MVP 김덕현(남자 세단뛰기)은 17m07을 뛰어 ‘마의 17m 벽’을 넘었다.

스스로 기록의 한계가 어딘지 모른다고 할 만큼 놀라운 신장세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16m80대에서 가려질 걸로 예상된다. 자신의 기록만 뛰면 금메달은 ‘떼는 당상’이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종합대회의 압박감을 헤쳐나가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자역도 세계기록을 보유한 장미란(23·원주시청)은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될 제15회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의 기상을 뽐낼 금메달 유망주다. 사진은 장미란이 지난달 22일 포항해양과학고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최종량급(75kg 이상급) 용상 1차 시기에서 145kg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11월 ‘죽음의 일정’ 남자”



15일 아시안컵 예선 이란전, 14·21일 한·일전...베어백 지휘력 시험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우승을 당면 목표 로 내건 베어백호가 11월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20년만에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올해 최대 과제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열리는 평가전 성격의 대전이 만만찮은 상대들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베어백호는 곧 ‘한지붕 두 가족’으로 ‘분가’를 하게 된다.

우선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7일 소집돼 테헤란 원정 준비에 들어간다.

유럽파를 점검하고 5일 입국하는 펄 베어백 감독은 오는 15일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07 아시안컵축구 예선 최종전 이란과 원정경기에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들을 데려가겠다고 공언해놓은 상태.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박주영, 정조국(이상 서울), 최성국(울산), 백지훈(수원), 김영광(전남) 등 23세이하 선수들과 와일드카드 로 합류할 이천수(울산), 김두현(성남), 김동진(제니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이란은 지난 9월 방한했던 성인대표팀 정에 멤버가 그대로 출전할 것으로 알려져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A매치 전적에서 8승4무7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10만명을 수용하는 아자디 경기장의 광적인 응원 과 원정의 불리함을 감안할 때 쉽지않은 일전이 될 게 분명하다.

한국과 이란은 아시안컵 예선에서 3승2무로 동률이고 골득실에서 대만전에서 대량득점한 한국이 4골 앞서 있다.

더 큰 문제는 14일(창원)과 21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전을 치러야 하는 올림픽 대표팀(21세 이하)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8강을 목표로 내년 초부터 예선을 진행해야 할 올림픽팀은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팀은 작년 네덜란드 U-20 세계청소년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을 주축으로 선발돼야 하는데 박주영, 백지훈과 오장은(대구), 김진규(이와타), 정인환(전북), 정성룡(포항) 등 6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겹치기 때문에 이들을 빼고나면 선수층이 극도로 얇아진다.

베어백 감독도 테헤란 원정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올림픽팀 지휘봉은 홍명보 코치가 대신 잡는다.

전통적으로 올림픽팀을 중시하는 일본은 고지 소리마치 감독이 지난 달부터 올림픽팀을 구성해 이미 한 차례 담금질과 평가전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옵션 포함 다년 계약 추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잔류를 선언한 이승엽(30)이 메이저리그 옵션을 포함한 다년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토폰’이 지난달 3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승엽이 요미우리의 우승을 이끈 뒤 구단으로부터 메이저리그 진출을 허락 받는 형식이 될 것이며 이는 다년 계약을 원하는 요미우리 구단과 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이승엽 사이의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년 동안 요미우리의 주포로 활약해 온 구부 히로키가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하고 친정팀 소프트뱅크 호크스 복귀 의사를 밝힌 터라 더 이상의 거포 유출을 막기 위해 요미우리가 이승엽의 뜻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제 관심은 이승엽이 팀 내 최고 연봉 선수에 오를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미 구단에서 내년 예산의 대폭 삭감 방침을 밝히면서 이승엽을 제외하고 거액을 받는 선수 대부분이 칼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1일(수)
-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한국-이탈리아)(14:20·MBC)
- ▲FIVE 세계 여자배구 선수권(한국-폴란드)(14:50·Xports)
- ▲세계 배구선수권 대회(한국-폴란드)(14:55·KBS1)

전북 오늘 결승 1차전

AFC 챔피언스리그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K-리그 최초로 아시아 클럽 축구 최정상을 향해 발진한다.

전북은 1일 오후 7시(엑스포즈, SBS스포츠 생중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알 카라마(시리아)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 홈경기를 벌인다.

AFC 챔피언스리그는 2002-2003 시즌 아시안클럽 챔피언십과 아시안컵 위너스컵, 아시아 슈퍼컵을 통합해 만든 대회.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지만 K-리그 팀이 정상에 오른 적은 아직 없다.

2004년 결승에 오른 성남 일화가 알 이티하드(사우디 아라비아)와 원정 1차전에서 3-1로 이기면서 우승 꿈을 부풀렸지만 홈 2차전에서 아예없이 0-5로 지는 바람에 우승을 코앞에서 놓쳤다.

전북으로서도 같은 해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아시아 클럽 정상에 오르면 60만 달러(약 5억8천만원)의 우승 상금에다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참가 티켓이라는 보너스가 주어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침어진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국내 최대 규모까지 공사 가능
- 작업성 및 안전성 우수
- 시공비용 절감
- 환경 오염 최소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구조물 내부 보강
- 연약지반 강화
- 지하수 유출 방지
- 화재 예방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도로 노면 보강
- 주차장 바닥 보강
- 지하철역 내부 보강
- 지하철역 외부 보강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지하철역 내부 보강
- 지하철역 외부 보강
- 지하철역 내부 보강
- 지하철역 외부 보강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지하철역 내부 보강
- 지하철역 외부 보강
- 지하철역 내부 보강
- 지하철역 외부 보강

무등산업

무등산업은 1982년 설립된 이래 24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등산업

무등산업은 1982년 설립된 이래 24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등산업

무등산업은 1982년 설립된 이래 24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등산업

무등산업은 1982년 설립된 이래 24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